

이룸소식 2015 02호

안녕하세요. 어느덧 1월이 지나 시장상황과 운용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조심스러운 반등을 시도중인 1월 증시

1월 주식시장은 종합지수가 1.8% 반등하면서 조심스러운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시장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어 코스닥지수는 한달 동안 9%나 반등하였습니다. 이는 아직 경기가 풀리지 않아 대기업들의 기업실적이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형 종목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소형주 및 코스닥 기업 중에서도 게임, 헬스케어, 바이오, 화장품 그리고 중국수요 관련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 1월 운용경과

저희는 상당수 중소형 종목들의 주가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상승했다고 생각하여 차익을 실현하고 새로운 종목들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기존 소비재 종목들의 주가 상승폭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동안 시장에서 하락폭이 컸던 제조업종목이나 소비재 종목 중 상승폭이 작았다고 생각되는 종목들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룸의 계좌들은 1월 동안 약 1.35%에서 3%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시장흐름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응하되 중소형주의 주가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다소 보수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2월 전망

최근 유가하락과 금리상승의 우려가 시장에 많이 반영되면서 주가하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가하락은 주식시장에 부정적 요인이 될 수도 있

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경제와 증시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국의 경기도 강하지 않아 금리도 빠르게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할 위험도 제한적입니다.

가장 큰 변수는 이번 3-4월 주총시즌이 다가오면서 실제로 배당이 증가한 기업들이 늘어나면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새로운 투자흐름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초반 우선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한 이후 다시 한번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주가흐름은 부진하지만 이러한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기본 축으로 가져감으로써 꾸준히 금리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2월 운용결과를 가지고 3월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2015. 2. 3.

조세훈 올림 / 이룸투자자문 대표